

주요소식

PSA 선보아카데미

2015 글로벌 챌린지 사원-계장 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15일, 16일 양일간 사원-계장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PSA 선보아카데미 글로벌 챌린지'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조선업 불황 파고'와 '저유가의 역풍'까지 극한의 위기 속에서 선보인의 진정한 저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0여 명의 사원-계장급 직원이 참가했다.

첫째 날인 15일은 '선보기적으로 자기 극복과 한계 도전으로 자신감을 고취하고 동료 간 팀워크 강화를 위한 산행의 날'이었다. 아침 8시, 6개 팀으로 편성된 참가자들은 배내고개 광장에서 '나는 강한 투지와 불굴의 집념으로 어떠한 역경도 끝까지 극복하는 강한 선보인이 되겠다'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간월산에서 신불산, 영축산으로 이어진 산행은 총 9시간, 이동거리는 15km에 달했다. 간월재에서는 자기성찰을 위한 명상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 신불산 정상인 신불재에 도착하여서는 '벽허물기 게임'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감을 높였다. '동료를 믿고 뒤로 넘어지기 게임'은 한 명의 동료가 앞장서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물망을 잡고 뒤에서 기다린다. 앞장 선 동료는 뒤를 받쳐주고 있는 팀원을 믿고 뒤로 넘어지면 된다.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팀원들이 있기에 모두들 망설임 없이 뒤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지면서 팀원들이 든든히 받치고 있는 그물망에

닿는 순간, 안도감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라며 팀원들은 서로 간의 신뢰감을 확인했다. 이날 영축산 정상까지 산행 인솔과 진행을 책임진 사업기획팀 최영찬 차장은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 선보인들의 단합심과 저력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동을 전했다.

최종 목적지인 통도환타리아호텔에는 최금식 대표이사가 자리를 함께 하며 땀으로 범벅된 교육자들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포옹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보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더 강해진 선보인을 기대합니다."라는 격려사로 화합주를 나누며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했다. 둘째 날에는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요가와 함께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김상진 차장의 HSE 경영시스템 강의와 최경호 부장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점심식사 후에는 김창욱 상무의 경영혁신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김창욱 상무는 우리 회사 새로운 2020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회사 2020비전은 6월 25일 발대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선보인에 대한 존중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배양한다'는 PSA 선보아카데미의 설립 이념에 맞추어 기획된 이번 사원-계장 교육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차기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 회사

2015년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1일,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2015년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지난 3월부터 1차 서류를 통과한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등 과정을 거쳐 최종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에게는 작업환경개선비 3천만 원과 맞춤형형마케팅비 700만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자금 금리 및 이차보전 우대, 취득세 감면, 기타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우수기업들은 향후 1년간 고용률을 유지해야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2018년 5월 31일까지이다.



부산 특성화고 학생 40여 명

우리 회사 탐방

지난 5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15 특성화고 부산 우수강소기업 현장탐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에 부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방문했다. 현장탐방사업은 지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알려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회사를 방문한 학생들은 경영지원 서재욱 상무와 함께 회사 내부와 현장 투어에 나섰다. 이번 우수강소기업 현장탐방에 함께 방문한 학부모는 "깨끗한 작업환경과 다양한 복지제도에 특히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선보공업과 같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길 소망합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부서소식

설계부 신입사원들의 '내 생애 첫 작품 기념회'

'내 생애 첫 작품 기념회'는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과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신입사원들의 열의가 뜨겁다.

우리 회사는 현재 설계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내 생애 첫 작품 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내 생애 첫 작품 기념회' 행사는 설계부 신입사원의 첫 설계 '유닛' 납품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로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프로젝트 진행의 효과가 있다. 자신의 첫 작품인 '유닛' 납품을 완료해 보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신이 설계한 유닛에 대한 애착도와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납품의 주인공은 설계 3팀 박수영 사원이다. 박수영 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일,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 박수영 사원이 맡은 제품명은 2783호선의 AFT 유닛으로 Tank Top 유닛이다. 박수영 사원은 F.O SUPPLY 유닛 등의 다른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Tank Top 유닛 납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 사원이 맡은 2783호선의 AFT 유닛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설계 작업을 완료하고, 다대2공장에서 조립 작업을 시작했다. 박수영 사원은 "틈틈이 현장에 내려가 실물을 봤어요. 처음 해보는 Tank Top 유닛이라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팀원 모두가 잘 챙겨주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짧은 소감을 남겼다. 5월 20일 오전 11시에는 2783호선의 'AFT 유닛' 작업이 완료돼 '내 생애 첫 작품 기념회'가 다대2공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회에는 최순찬 팀장을 포함한 설계 3팀 전원, 최동배 이사, 이경식 팀장, 이현우 차장, 이경화 과장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박수영 사원은 "하나의 유닛이 납품되기까지는 설계뿐만 아니라 구매, 영업, 현장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ank Top 유닛은 처음 도전하는 프

로젝트라 저에게도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쑥스럽지만 지면을 통해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감과 함께 유닛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어갔다. 기념회에 참석한 전원은 본사 4층에 마련된 특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가졌다. 2783호선의 'AFT 유닛'은 지난 6월 3일 납품이 완료되었다. '내 생애 첫 작품 기념회' 행사는 향후 22명의 신입사원들의 작품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설계1팀 허용 사원과 안형진 사원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신입사원들의 열정 가득한 행보를 기대해본다.



생활정보

알고 가면 더 재미있는 색다른 여행지 소개

경남 하동



구~경 한번 와보세요. '화개장터'가 지난 11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섬진강변 주변으로 한옥 장옥 시설을 갖추고 있어, 옛 장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떠나기 좋다. '화개장터' 구경하고 저녁에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하룻밤을 추천한다.

경남 여수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여수'이다. 한화 아쿠아 플라넷을 비롯해, 오동도, 하멜전시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수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면 여수 곳곳을 둘러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올해 여름 휴가는 여수로 떠나보자.



interview

다대1공장 배관조립팀 안종록 소장의 퇴임식

"최금식 대표이사님, 그리고 부사장님 함께 해온 직원들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안종록 소장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6월 2일, 우리 회사와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다대1공장 배관조립팀 안종록 소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퇴임식에는 최상식 부사장님을 비롯해, 배관조립팀 전원이 참석해 안소장의 지난 15년의 열성과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안 소장은 우리 회사 입사 전 대우조선에서 15년간 근무를 해왔으며 배관조립 기술을 인정받은 전문가이다. 지난 2000년 12월 1일 처음 부산을 찾았고 그해부터 우리 회사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대우조선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우리 회사에서 배관조립팀을 이끌었으며 우리 회사 '유닛'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안소장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일적인 부분은 물론 사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

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고민거리가 있으면 안 소장님을 찾아갈 것입니다."라며 안 소장을 벌써부터 그리워했다.

안 소장은 "선보와 인연을 맺은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선보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행복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합니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떠났다. 우리 회사는 안 소장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표하며 감사패와 금반지, 은수저 세트를 전했다.

H.S.E

비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주의!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MERS") 확진 환자가 늘고 있어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MERS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급성호흡기 질환이다. 2012년 중동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총 24개국, 1,154명의 환자 발생했다. (15.5.21 기준)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0일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 현재 1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MERS의 높은 치사율과 전파력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처음 발견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사율이 43%의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6분의 1 수준인 7% 미만이다. 이런 수치는 급성 폐렴으로 인한 치사율보다 낮은 것이다. 그렇다고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 해서는 안 된다. 높은 전염력과 무시 못할 치사율로 인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격리대상이 되고 환자가 활동했던 구역도 일시적으로 폐쇄하게 되므로 개인의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나아가 소속된 집단에 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증상은 감염 후 주로 5일 이내에 나타나는데 기침,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증상과 37.5도 이상의 발열, 두통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급성신부전증을 동반하여 소변량 등이 감소한다.

메르스(MERS) 예방 수칙

생활 속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중동지역 여행 시에는 낙타와 접촉을 피할 것

의료기관 이용 시 준수사항

-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
- 중증 환자 외에 대형의료기관 이용을 자제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실 내원을 자제
-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안내에 잘 따를 것

의료기관 방문 시 준수사항

- 되도록 방문인 자제,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방문인을 삼가도록
- 방문인 할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위생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
- 방문인 후, 보건요원 등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정중하게 응하기

올바른 손씻기 방법

- 손가락 등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줍니다.
- 엄지손가락을 반대 손바닥으로 돌리면서 문질러 줍니다.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세정합니다.
- 손 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체온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이 있을 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109)으로 연락하고, 각 부서장 또는 공장장, 본사 총무안전팀 전번서 대리(010-9299-2888)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소식

2015년 5월 1일자로 정기 인사고과 승진자를 발표합니다. 승진자 여러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차장 → 부장

구평공장 차장 박상계	기술연구소 차장 최재호 명. 부장
-------------	--------------------

과장 → 차장

설계 2팀 과장 최우호	구평공장 과장 윤용남
영도공장 과장 김태경	군산공장 과장 김덕현 명. 차장

과장대우 → 과장

구평공장 과장대우 현재구	명. 과장
---------------	-------

대리 → 과장

사업계획 대리 정현우	품질보증 대리 이현수
설계5팀 대리 김정식	설계1팀 대리 유병창
영도공장 대리 권운현	명. 과장

계장 → 대리

설계3팀 계장 고중현	재무인사 계장 김광수
품질보증 계장 김기호	플랜트설계 계장 하은준
기술연구소 계장 이영우	영도공장 계장 이정환
다대1공장 계장 한승진	기술영업 계장 신진환
다대2공장 계장 한승목	명. 대리

4급사원 → 계장

품질보증 4급 선민규	설계3팀 4급 황세연
설계4팀 4급 심음복	설계4팀 4급 이형백
플랜트설계 4급 전형주	명. 계장

5급사원 → 4급사원

자재조달 5급 조재현	기술연구소 5급 김재래 명. 4급사원
-------------	----------------------

5-1사원 → 5급사원

설계6팀 5-1 정준영	재무인사 5-1 김숙정 명. 5급사원
--------------	----------------------

주임 → 팀장

다대1공장 주임 김형원	다대3공장 주임 최 철 명. 팀장
다대3공장 주임 지기환	

가능직사원 → 주임

다대1공장 가능직사원 허 준	다대1공장 가능직사원 김민성
다대1공장 가능직사원 최진희	다대2공장 가능직사원 권상현
다대2공장 가능직사원 김창영	다대2공장 가능직사원 조대훈
다대3공장 가능직사원 제구원	명. 주임

이명 경영지원부서장 서재욱



H.S.E

혹서기를 대비한 '안전사고예방캠페인' 벌여

지난 5월 27일, 우리 회사 구평공장이 위치한 감천 일대에서 혹서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의 '안전사고예방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감천 주변에 위치한 10여 개의 조선관련 업체, 15명이 참여하였다. 참가한 우리 회사와 주변 업체 직원들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지나는 많은 산업 일꾼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혹서기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올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혹서기에는 그에 따르는 많은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기에 이번 캠페인은 시기와 내용이 매우 유효적절하였다는 평이다.



선보소식

지진으로 고통 받는 네팔 국민 위해 따뜻한 마음 전하다

우리 회사는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2015년 4월 25일 발생)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2주간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최상식 부사장 이하 임직원 151명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500만 원은 5월 29일 한국기아대책본부에 전달됐다.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은 "두 차례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작은 온정이 대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전해져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네팔 지진으로 고통 받는 재해민들의 빠른 재난복구와 회복을 희망한다. 또 지진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에도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culture



2015년 5월 21일 우리의 첫 부부의 날을 보내며... 신유진(설계3팀 최순찬 부장님 가족)

우리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이하여 기존에 한해 오후 3시에 조기퇴근을 실시하여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였다. 또한, 사내 '부부의 날 기념 수기'를 공모했다. 공모에 선정된 신유진님의 수기를 소개한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당신과 저는 각자의 삶에 더 바쁘고 정신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늦은 퇴근으로 서로 얼굴보기가 쉽지 않았고, 대화는 더욱 쉽지 않아서 점점 더 소원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5월 21일 부부의 날, 짠! 하고 평소보다 일찍 온 당신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부부의 날이라 회사에서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와우~ 서프라이즈~^^”를 외쳤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이 결성되고

처음으로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열광적인 노래에 당신도 덩달아 즐거워진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불러준 벚꽃 엔딩도 참 듣기 좋았습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고마운 한편 당신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그래도 가끔은 우리 가족에게도 그 에너지를 쏟아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서로 노력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날을 챙겨주신 회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회사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우리 회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0일에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본사 4층 식당에서 '케이크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달 진행된 공공미술 참여 프로젝트 '달콤한 무지개'의 일환이다.

이날 김청옥 상무 등 임직원 및 직원 가족 총 30여 팀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홍티아트센터 감윤경 작가의 지도 아래 준비된 케이크 시트(cake sheet)에 손수 생크림과 데커레이션 도구 등으로 장식하며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냈다.

특히 서재욱 상무, 전민재 부장, 전광진 과장, 이은석 과장, 최우호 차장은 자녀들과 함께 케이크를 완성해 가족행사의 취지를 더욱 빛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럽게 처음 만들어 본 케이크는 예쁜 상자에 포장해 가족들

에게 전달됐다.

이번 케이크 만들기 체험행사는 매달 문화행사로 진행되는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보다 직원 및 직원가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유익함과 즐거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이에 최금식 대표이사는 본사와 먼 거리에 위치하여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해 자체적으로 '케이크 만들기 체험 행사'를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는 동료애와 애사심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직원 가족들에게는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가족의 화목을 이끌어내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가갈 예정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다대공장 김동섭 (06.01)
- 최홍렬 (06.03)
- 정남교 (06.05)
- 최경호 (06.05)
- 김태호 (06.06)
- 김재래 (06.09)
- 정재용 (06.09)
- 이현우 (06.12)
- 배우건 (06.16)
- 송우섭 (06.18)
- 김은식 (06.18)
- 정재원 (06.23)
- 김민수 (06.23)
- 안태주 (06.25)
- 정성욱 (06.27)
- 허 헌 (06.28)
- 김지상 (06.30)
- 강민준 (06.30)

- ☑ 구평공장 안철순 (06.04)
- 유금화 (06.04)
- 이원규 (06.11)
- 찬병철 (06.28)

- ☑ 영도공장 이정훈 (06.14)
- 조연주 (06.20)



입사 기념일

- ☑ 다대공장 김동섭 (06.01)
- 김기호 (06.01)
- 김종민 (06.02)
- 안정빈 (06.03)
- 장철민 (06.09)
- 김대관 (06.09)
- 최 철 (06.16)
- 최영찬 (06.17)
- 박귀남 (06.18)
- 안태주 (06.19)
- 김형원 (06.24)
- 차인욱 (06.25)